

A05

삼국의 중앙 집권 체제

고구려·백제·신라를 함께 ‘삼국’이라고 부릅니다. 세 나라는 왕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과 사람을 다스리는 조직과 제도를 갖추어 갔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중앙 집권’은 이런 변화와 관련된 말입니다. 왕의 힘을 키우는 데 법과 종교가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그러면서도 귀족 회의가 왜 남아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이 자료의 질문

- Q01 중앙 집권은 사람들이 수도에 모여 산다는 뜻인가요?
- Q02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왜 왕권 강화와 관련되나요?
- Q03 신라가 왕의 칭호를 바꾼 것이 왜 중요한가요?
- Q04 율령을 반포했다는 것은 어떤 일을 했다는 뜻인가요?
- Q05 관리의 등급과 옷을 정한 것이 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인가요?
- Q06 삼국은 왜 불교를 받아들였고, 이것이 왜 왕권에 도움이 되었나요?
- Q07 삼국의 귀족 회의는 무엇이고, 이름은 어떻게 다른가요?
- Q08 중앙 집권 국가인데 귀족 회의가 있으면 왕의 힘이 약했다는 뜻인가요?

한눈에 정리 · 확인 문제 18개 · 정답과 해설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Q01 중앙 집권은 사람들이 수도에 모여 산다는 뜻인가요?

한 줄 답

아닙니다. 중앙 집권은 나라를 다스리는 힘이 왕과 중앙 정부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보다 누가 나라의 일을 결정하고 실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용어 풀이

- **수도:** 왕과 중앙 정부가 있는 나라의 중심 도시.
- **중앙 정부:** 나라 전체의 일을 맡아 다스리는 조직.
- **중앙 집권:** 여러 집단이나 지역에 나뉘어 있던 통치 권력이 왕과 중앙 정부에 집중되는 것. 통치 권력은 나라를 다스리는 힘을 뜻함.
- **체제:** 어떤 일을 운영하는 조직과 제도의 짜임. 중앙 집권 체제는 왕과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짜임을 뜻함.

설명 1 처음부터 왕의 힘이 모든 지역에 똑같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삼국은 여러 집단을 합치며 성장했습니다. 초기에는 각 집단의 우두머리가 자기 지역과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행동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있어도 지역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뜻대로 움직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설명 2 나라가 커질수록 함께 처리해야 할 일이 늘었습니다.

넓어진 땅을 지키고 군대를 움직이려면 여러 지역의 힘을 모아야 했습니다. 세금(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백성에게 거두는 곡식이나 물품 등)을 걷고 다툼을 해결할 기준도 필요했습니다. 왕은 관리(나라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들을 두고, 여러 지역을 중앙의 지시에 따라 다스리는 조직을 갖추어 갔습니다.

설명 3 핵심은 사람들의 이사가 아니라 다스리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중앙 집권이 진행되어도 사람들은 여러 지역에 나뉘어 살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각 지역의 우두머리가 자기 뜻대로 처리하던 일을 왕과 중앙 정부가 더 많이 맡아 처리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런 변화는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나라와 시기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중앙 집권의 핵심은 ‘왕과 중앙 정부의 통치력 강화’입니다. ‘모든 사람이 수도로 이사함’이나 ‘왕이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앙 집권이 진행된다면

사는 곳이 아니라, 다스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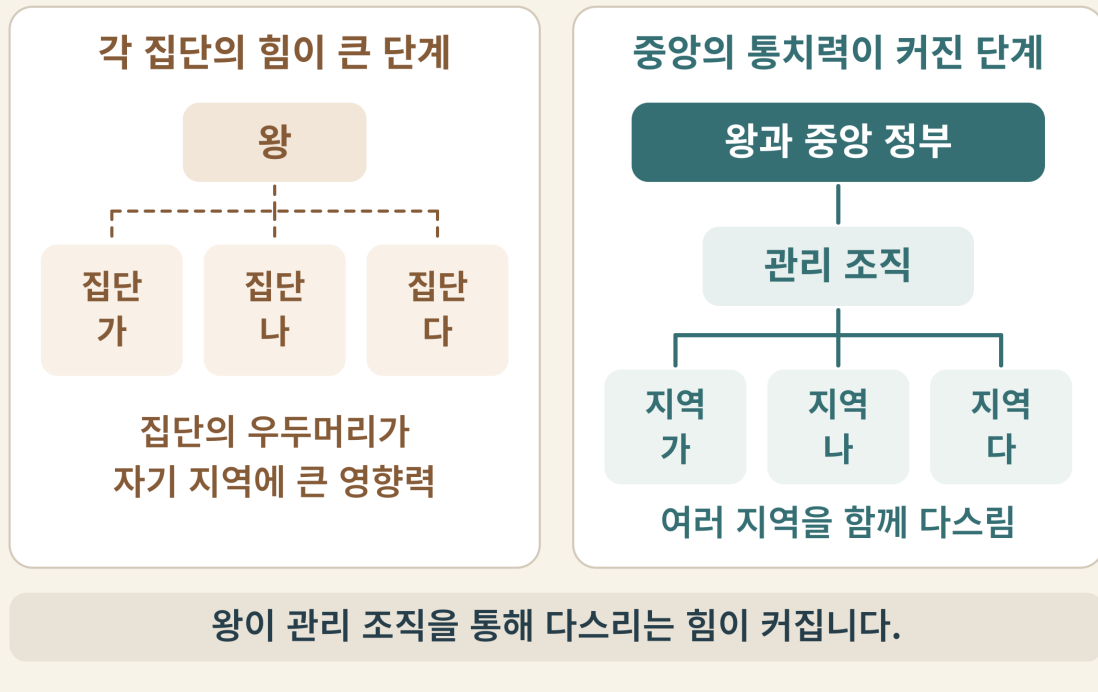


그림 1. 중앙 집권이 진행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왕이 관리 조직을 통해 여러 지역을 다스리는 힘이 커집니다. 점선은 왕의 힘이 각 집단에 미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개념도이며, 표시한 집단·지역의 수는 실제 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Q02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왜 왕권 강화와 관련되나요?

한 줄 답

왕위가 특정 왕실 안에서 이어지면 다른 집단이 왕위를 차지하기 어려워져 왕실의 지위가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왕위를 잇는 부자 상속도 이런 변화와 관련됩니다.

용어 풀이

- **왕위:** 왕의 자리.
- **왕실:** 왕과 그 가족.
- **왕권:**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
- **세습:** 지위나 재산 등을 같은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주는 것.
- **부자 상속:**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물려주는 것. 여기서 ‘부자’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뜻함.

설명 1 왕이 바뀔 때마다 여러 집단이 경쟁할 수 있었습니다.

왕위를 누가 이룰지 정해져 있지 않으면 힘 있는 집단들이 자기 쪽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 할 수 있습니다. 왕위를 특정 왕실에서 이어 가는 방식이 자리 잡으면 왕을 배출할 수 있는 집안이 제한됩니다. 그만큼 왕실의 지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설명 2 부자 상속은 왕실 안에서 왕위를 잇는 한 방식입니다.

삼국이 성장하면서 왕위 세습이 강화되고 부자 상속이 자리 잡아 갔습니다. 교과서에서 고구려 고국천왕 때 왕위를 잇는 방식이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하는 것도 이와 관련됩니다. 형제 상속은 형에게서 동생으로, 부자 상속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왕위를 잇는 것입니다.

설명 3 세습과 부자 상속을 완전히 같은 말로 보면 안 됩니다.

같은 왕실 안에서 형에게서 동생으로 왕위가 이어져도 세습에 해당합니다. 부자 상속은 세습의 한 방식이지 세습의 전부는 아닙니다. 또 부자 상속이 자리 잡았다고 해서 이후의 모든 왕위가 반드시 아버지에게서 맏아들로 이어지거나 왕위 다툼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왕위 세습의 강화는 왕실의 지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습은 언제나 부자 상속’이나 ‘왕위 다툼이 완전히 사라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Q03 신라가 왕의 칭호를 바꾼 것이 왜 중요한가요?

한 줄 답

왕을 부르는 칭호의 변화에는 왕의 지위와 권위를 높이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신라는 지증왕 때 왕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꾸었습니다.

용어 풀이

- **왕호**: 왕을 부르는 칭호. 칭호는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이름을 뜻함.
- **권위**: 다른 사람들이 그 지위나 능력을 인정하여 따르게 하는 힘.
- **마립간**: 신라에서 쓰던 왕의 칭호. ‘대군장’, 곧 여러 우두머리 가운데 큰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풀이함.
- **지증왕**: 신라의 왕으로, 왕호를 ‘왕’으로 바꾸는 등 나라의 제도를 정비했음.

설명 1 ‘마립간’도 왕을 부르던 말입니다.

신라는 ‘왕’이라는 칭호를 쓰기 전에도 나라를 이끄는 왕이 있었습니다. ‘마립간’은 그 왕을 부르던 칭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왕호를 바꾸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왕이 생겼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설명 2 ‘왕’이라는 칭호는 달라진 나라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증왕 때 신라는 왕호를 마립간에서 중국식 칭호인 ‘왕’으로 바꾸었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군주(나라의 최고 지배자)의 지위를 안팎에 분명히 드러내려는 변화였습니다. 지방을 다스리는 조직을 갖추는 등 다른 제도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설명 3 이름만 바꾼다고 왕의 힘이 저절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왕의 지위를 높이려면 실제로 사람과 지역을 다스릴 조직이 필요합니다. 왕호의 변화는 이런 제도 정비와 함께 볼 때 중앙 집권이 진행되었음을 보여 주는 단서가 됩니다. ‘왕’이라는 칭호 하나만으로 왕이 모든 일을 마음대로 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증왕 때의 왕호 변화는 ‘마립간에서 왕으로’입니다. 왕의 지위를 높이고 국가 체제를 정비한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Q04 율령을 반포했다는 것은 어떤 일을 했다는 뜻인가요?

한 줄 답

형벌과 나라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법으로 정리하여 널리 알렸다는 뜻입니다. 왕과 중앙 정부가 나라를 다스릴 공통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용어 풀이

- **율령**: 형벌과 나라 운영에 관한 법. ‘율’은 주로 죄와 형벌을, ‘령’은 관리 조직과 나라의 업무 등을 다루는 규정을 뜻함.
- **형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국가가 내리는 벌.
- **반포**: 법이나 명령 등을 널리 알리는 것.
- **행정**: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법과 제도에 따라 실제 일을 처리하는 것.

설명 1 율령은 처벌 규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율령에는 어떤 잘못에 어떤 벌을 줄 것인지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관리 조직과 나라의 업무를 처리하는 기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율령 반포’를 ‘벌을 더 무겁게 한 일’로만 이해하면 중요한 뜻을 놓치게 됩니다.

설명 2 공통 기준이 있어야 여러 지역을 함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우두머리의 판단에만 의지하면 같은 문제도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가 법과 행정의 기준을 정하면 관리들은 그 기준에 따라 일하게 됩니다. 이는 왕과 중앙 정부가 여러 집단과 지역을 하나의 통치 조직으로 묶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설명 3 율령 반포는 이미 있던 규칙을 정비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신라는 법흥왕 때 율령을 반포했습니다. 백제는 고이왕 때 관등(관리의 등급)과 관복(관리가 입는 옷)을 정비하면서 율령도 마련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이전에 아무 법이나 규칙도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공통된 법을 마련했다고 해서 귀족과 일반 백성의 신분(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 차이까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귀족은 높은 신분을 바탕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특별한 권리를 누리던 지배층을 말합니다.

시험 포인트

율령 반포는 ‘형벌·행정 등의 기준 정비’이며 중앙 집권을 뒷받칩니다. ‘이전에는 규칙이 전혀 없었음’이나 ‘모든 신분이 평등해짐’과 구별하세요.

Q05 관리의 등급과 옷을 정한 것이 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인가요?

한 줄 답

관리의 등급인 관등과 관리가 입는 관복을 정하면 관리들 사이의 높낮이와 질서를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집단의 우두머리를 왕 아래의 관리 조직으로 묶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용어 풀이

- **관리:** 나라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
- **관등:** 관리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등급.
- **관복:** 관리가 나라의 일을 할 때 입는 옷. 공복이라고도 함.
- **관직:** 관리가 맡는 직책이나 자리. 관등이 '지위의 높낮이'라면 관직은 '맡은 자리'에 초점이 있음.

설명 1 관등은 여러 관리를 하나의 질서 안에 두는 기준입니다.

왕이 혼자 세금·군사·지방의 일을 모두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관리가 일을 나누어 맡아야 합니다. 이때 관등을 정하면 관리들의 지위와 상하 관계가 분명해져 왕을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쉬워집니다. 여러 집단의 우두머리에게도 관등을 주어 왕 아래의 관리 조직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설명 2 관복은 관리의 지위를 겉으로도 구별하게 했습니다.

관등에 따라 옷의 색 등을 달리하면 관리들 사이의 등급을 눈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백제 고이왕 때 관등제와 관복제를 정비한 일, 신라 법흥왕 때 율령을 반포하면서 관리의 옷차림을 정한 일은 이런 변화와 관련됩니다. 단순히 옷을 아름답게 꾸미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설명 3 관등과 관직은 관련되어 있지만 같은 말은 아닙니다.

관등은 관리의 등급이고 관직은 그 관리가 맡은 자리입니다. 관등을 알면 관리의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맡은 업무까지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또 관리 조직이 정비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신분과 관계없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관등은 '관리의 등급', 관직은 '맡은 자리', 관복은 '관리가 입는 옷'입니다. 관등·관복의 정비는 왕 중심의 관리 조직과 질서를 갖추는 일입니다.

Q06 삼국은 왜 불교를 받아들였고, 이것이 왜 왕권에 도움이 되었나요?

한 줄 답

여러 집단이 함께 따를 생각과 믿음의 바탕을 마련하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삼국이 나라를 하나로 묶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용어 풀이

- **불교**: 석가모니가 시작한 종교로, 그의 가르침에 따라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음. 석가모니를 흔히 부처라고 부름.
- **불교 공인**: 국가가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 **사상 통합**: 여러 집단이 함께 따를 생각과 믿음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 모든 사람의 생각을 똑같이 만든다는 뜻은 아님.
- **승려**: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고 이를 전하는 사람. 흔히 스님이라고 부름.
- **순교**: 자신의 종교적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

설명 1 서로 다른 집단을 묶을 공통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삼국에는 여러 지역과 집단이 함께 살았고, 각자 따르던 신앙(신이나 종교를 믿는 것)도 있었습니다. 나라가 커질수록 이들을 하나로 묶을 정신적 바탕이 필요해졌습니다. 불교는 한 지역이나 집단을 넘어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가르침을 제공했습니다.

설명 2 왕실은 불교를 보호하며 권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왕실은 절을 세우고 승려의 활동을 도우며 불교를 보호했습니다. 왕을 불교의 가르침을 지키고 나라를 보호하는 존재로 보는 생각은 왕의 권위를 뒷받침했습니다. 불교 수용은 종교의 변화인 동시에 왕권 강화와도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설명 3 공인은 국가의 인정이지 모든 사람의 즉각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백제는 침류왕, 신라는 법흥왕 때 불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불교 공인 전에 이미 불교를 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신라에서는 공인 이전에 불교가 전해져 있었습니다. 공인했다고 모든 사람이 곧바로 불교를 믿거나 기존 신앙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신라에서는 귀족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법흥왕 때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었습니다. 이차돈은 불교를 믿으며 공인을 도운 신라의 신하입니다.

시험 포인트

불교 수용의 정치적 의미는 ‘여러 집단의 사상 통합·왕실의 권위 상승·왕권 강화’입니다. 불교가 처음 전해진 때와 국가가 공인한 때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신라는 공인 전에 이미 불교가 전해져 있었습니다.



그림 2. 함께 듣는 불교의 가르침. 여러 사람이 공통의 가르침을 접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학습을 돕기 위한 재구성 그림이며 특정 왕이나 실제 행사를 그대로 그린 것이 아닙니다. 불교 공인 뒤 모든 사람이 곧바로 불교를 믿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Q07 삼국의 귀족 회의는 무엇이고, 이름은 어떻게 다른가요?

한 줄 답

귀족 회의는 힘 있는 귀족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는 모임입니다. 고구려에는 제가 회의, 백제에는 정사암 회의, 신라에는 화백 회의가 있었습니다.

용어 풀이

- **제가 회의:** 고구려의 귀족 회의. ‘제가’는 여러 ‘가’, 곧 여러 집단의 우두머리를 뜻함.
- **정사암 회의:** 백제의 귀족 회의. 재상(나라의 중요한 정치를 맡는 높은 관리)을 뽑을 때 이용했다고 전해지는 바위 ‘정사암’의 기록에서 비롯된 이름.
- **화백 회의:** 신라의 귀족 회의. 중요한 일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만장일치:** 회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설명 1 고구려에서는 여러 ‘가’가 나라의 큰일을 의논했습니다.

고구려를 이루던 여러 집단의 우두머리들은 귀족으로서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함께 의논하던 모임을 제가 회의라고 합니다. 이름의 ‘제’는 여럿이라는 뜻이므로 ‘제가’는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설명 2 백제에서는 정사암에 관한 기록을 통해 귀족 회의를 알 수 있습니다.

옛 역사책에는 백제에서 정사암이라는 바위와 관련하여 재상을 뽑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를 통해 백제에도 귀족들이 중요한 일에 참여하는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귀족 회의를 정사암 회의라고 부릅니다.

설명 3 신라의 화백 회의는 귀족들의 만장일치를 중시했습니다.

화백 회의에는 진골(신라의 높은 귀족 신분) 귀족 등이 참여하여 중요한 일을 의논했습니다. 만장일치는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결정하는 다수결과 다릅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결정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회의에 참여한 귀족들을 뜻하며, 백성 전체가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고구려: 제가 회의 / 백제: 정사암 회의 / 신라: 화백 회의. 만장일치는 특히 화백 회의의 특징으로 연결하며, 세 회의의 모든 운영 방식이 같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화백 회의의 만장일치

참석한 사람 모두의 의견이 같아야 합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아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물과 인원은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그림 3. 한 사람만 반대해도 결정할 수 없어요. 만장일치에서는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아도 한 사람이 반대하면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인물과 인원은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화백 회의의 참석자 수나 모습이 아닙니다.

Q08 중양 집권 국가인데 귀족 회의가 있으면 왕의 힘이 약했다는 뜻인가요?

한 줄 답

귀족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왕의 힘이 늘 약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왕 중심의 통치 조직이 갖추어져도 귀족은 정치에 참여했고, 왕과 귀족의 힘은 나라와 시기에 따라 달랐습니다.

용어 풀이

- **견제:**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 힘을 제한하는 것.
- **협력:** 힘을 모아 함께 일하는 것.
- **국왕 중심의 귀족 정치:** 왕을 중심으로 귀족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에 참여하는 정치.

설명 1 중양 집권이 진행되어도 귀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실제 일을 맡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집단의 우두머리들은 중앙의 귀족이나 관리로 편입되어 나라의 일을 맡았습니다. 편입은 어떤 조직 안에 들어가 그 일부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귀족 회의도 이런 지배층의 정치 참여를 보여 줍니다.

설명 2 귀족 회의는 왕을 견제하기도 하고 통치를 돕기도 했습니다.

귀족들이 함께 의견을 내면 왕이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왕은 귀족들과 의논하여 그들의 협력을 얻고 정책(나라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세운 방침)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가 있다는 사실과 왕권의 강약은 함께 살펴야 할 문제입니다.

설명 3 왕과 귀족의 관계는 늘 같지 않았습니다.

왕의 힘이 강해지면 귀족 회의의 영향력이 줄어들기도 하고, 귀족 세력이 강해지면 회의의 영향력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의 정치를 ‘왕이 모든 일을 혼자 결정했다’거나 ‘귀족만 다스리고 왕은 힘이 없었다’고 한쪽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시험 포인트

삼국의 정치는 왕을 중심으로 귀족이 함께 참여하는 ‘국왕 중심의 귀족 정치’였습니다. 귀족 회의의 존재는 귀족의 영향력을 보여 주지만, 모든 시대의 왕권이 약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한눈에 정리

중앙 집권을 이해하는 여섯 가지 열쇠

내용	무엇을 뜻하나요?	왜 중요한가요?
왕위 세습 강화	특정 왕실 안에서 왕위가 이어짐	왕실의 지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됨
왕호의 변화	지증왕 때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뀜	왕의 지위와 달라진 국가의 모습을 드러냄
율령 반포	형벌과 나라 운영의 규칙을 정리해 널리 알림	여러 지역을 다스릴 공통 기준을 마련함
관등·관복 정비	관리의 등급과 옷차림을 정함	왕 아래 관리 조직의 질서를 분명히 함
불교 수용	국가가 불교를 받아들이고 보호함	사상 통합과 왕실의 권위 강화에 도움이 됨
귀족 회의	귀족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함	중앙 집권 속에서도 귀족이 정치에 참여했음을 보여 줌

나라별로 연결하기

나라	본문에서 살펴본 변화	불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왕	귀족 회의
고구려	고국천왕 때 부자 상속, 소수림왕 때 율령 반포	소수림왕	제가 회의
백제	고이왕 때 관등·관복 정비(율령 정비로 함께 배우기도 함)	침류왕	정사암 회의
신라	지증왕 때 왕호 변경, 법흥왕 때 율령 반포·관복 정비	법흥왕	화백 회의

확인 문제

확인 01

빈칸

나라를 다스리는 힘이 왕과 중앙 정부에 집중되는 것을 _____ 이라고 합니다.

확인 02

객관식

중앙 집권이 진행되는 모습을 가장 알맞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각 지역의 우두머리가 중앙의 지시 없이 따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 ② 왕과 중앙 정부가 관리 조직을 통해 여러 지역을 다스립니다.
- ③ 여러 지역의 주민이 모두 수도로 옮겨 와 함께 살아갑니다.
- ④ 왕이 관리들을 없애고 모든 지역의 업무를 직접 처리합니다.

확인 03

빈칸

지위 등을 같은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주는 것은 ㄱ. _____ 이고,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왕위를 잇는 방식은 ㄴ. _____ 입니다.

확인 04

객관식

왕위 세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세습이 자리 잡으면 왕위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 ② 세습에서는 반드시 아버지에게서 맏아들로만 왕위를 잇습니다.
- ③ 세습에서는 왕이 바뀔 때마다 다른 집안에서 왕을 뽑습니다.
- ④ 세습이 강화되면 특정 왕실의 지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인 05

단답

신라 지증왕 때 왕호를 ‘왕’으로 바꾸기 전에 사용하던 칭호를 쓰세요.

답: _____

확인 06**객관식**

지증왕 때 왕호를 ‘왕’으로 바꾼 일을 가장 알맞게 이해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다른 제도 정비와 함께 왕의 지위를 높이는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 ② 이때 신라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처음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 ③ 왕호를 바꾸자 귀족들이 맡았던 모든 일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④ 왕호만 바꾸면 지역을 다스릴 조직은 필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인 07**빈칸**

형벌과 나라 운영에 관한 법을 ㄱ. _____ 이라고 하고, 법이나 명령 등을 널리 알리는 일을 ㄴ. _____ 라고 합니다.

확인 08**객관식**

율령 반포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모든 신분의 사람에게 같은 정치적 권리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 ② 각 지역이 국가의 기준 없이 법을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 ③ 형벌과 행정 등의 기준을 정비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데 활용했습니다.
- ④ 처벌 규칙만 정리하고 관리 조직과 업무에 관한 규칙은 두지 않았습니다.

확인 09**빈칸**

관리의 등급은 ㄱ. _____, 관리가 맡는 직책이나 자리는 ㄴ. _____, 관리가 나라의 일을 할 때 입는 옷은 ㄷ. _____ 입니다.

확인 10**객관식**

관등에 따라 관리의 옷차림을 구별한 까닭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관리마다 좋아하는 색을 자유롭게 골라 입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② 관리들 사이의 등급과 질서를 겉으로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 ③ 관리의 신분과 등급 차이를 모두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 ④ 지역마다 왕과 관계없는 관리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확인 11**객관식**

불교 공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나라의 모든 사람이 같은 날 불교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 ② 기존에 있던 신앙이 나라 안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 ③ 나라 안에 불교가 처음 전해진 날을 반드시 뜻하는 것입니다.
- ④ 국가가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확인 12**객관식**

세 나라가 불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때의 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무엇인가요?

보기	고구려	백제	신라
①	소수림왕	고이왕	지증왕
②	고국천왕	침류왕	지증왕
③	소수림왕	침류왕	법흥왕
④	고국천왕	고이왕	법흥왕

확인 13**서술**

삼국이 불교를 받아들인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한두 문장으로 쓰세요. **여러 집단을 묶는 데 준 도움과 왕실에 준 도움을 모두 넣으세요.**

확인 14**빈칸**

삼국의 귀족 회의 이름을 쓰세요.

고구려: ㄱ. _____

백제: ㄴ. _____

신라: ㄷ. _____

확인 15**단답**

화백 회의는 한 사람이라도 의견이 다르면 결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회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해야 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답: _____

확인 16**객관식**

화백 회의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귀족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했으며 만장일치를 중시했습니다.
- ② 일반 백성 모두가 모여 나라의 중요한 일을 직접 결정했습니다.
- ③ 귀족들이 모여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일을 결정했습니다.
- ④ 고구려에서 여러 집단의 ‘가’들이 모여 나라의 일을 의논했습니다.

확인 17**객관식**

다음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까닭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귀족 회의가 있었으니 삼국의 왕은 어느 시대에나 힘이 없었어.”

- ① 귀족 회의에는 귀족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② 귀족 회의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③ 중앙 집권이 진행되면 귀족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 ④ 왕과 귀족의 힘은 나라와 시기에 따라 달랐기 때문입니다.

확인 18**객관식**

삼국의 중앙 집권과 귀족 회의를 함께 이해한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귀족 회의가 있었으므로 삼국에는 왕 중심의 통치 조직이 없었습니다.
- ② 왕 중심의 통치 조직을 갖추면서도 귀족들이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 ③ 율령을 반포한 뒤에는 왕이 관리와 귀족의 도움 없이 통치했습니다.
- ④ 불교를 받아들인 뒤에는 귀족 회의가 나라의 일을 맡지 못했습니다.

정답과 해설

빠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01	중앙 집권	10	②
02	②	11	④
03	ㄱ 세습 / ㄴ 부자 상속	12	③
04	④	13	아래 모범 답안 참고
05	마립간	14	ㄱ 제가 회의 / ㄴ 정사암 회의 / ㄷ 화백 회의
06	①	15	만장일치
07	ㄱ 율령 / ㄴ 반포	16	①
08	③	17	④
09	ㄱ 관등 / ㄴ 관직 / ㄷ 관복	18	②

확인 01

정답: 중앙 집권

중앙 집권은 나라를 다스리는 힘이 왕과 중앙 정부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장소를 한곳으로 모은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앙 집권화’라고 써도 맞습니다.

다시 읽기: Q01.

확인 02

정답: ②

왕과 중앙 정부가 관리 조직을 통해 여러 지역을 다스리는 모습이 중앙 집권의 핵심입니다.

①: 지역의 우두머리가 중앙의 지시 없이 따로 다스리는 모습은 중앙의 통치력이 강화되는 것과 다릅니다.

③: 중앙 집권은 모든 주민이 수도로 이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④: 왕은 관리 조직을 통해 통치했습니다. 관리 없이 모든 업무를 혼자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읽기: Q01 설명 2·3.

확인 03

정답: ㄱ 세습 / ㄴ 부자 상속

세습은 같은 집안에서 지위 등을 이어 가는 것입니다. 부자 상속은 그 가운데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같은 왕실 안에서 형에게서 동생으로 왕위를 잇는 것도 세습에 해당하므로 두 말을 완전히 같게 보면 안 됩니다.

다시 읽기: Q02 설명 2·3.

확인 04

정답: ④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집안이 특정 왕실로 제한되면 그 왕실의 지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①: 같은 왕실 안에서도 왕위 다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세습이 다툼을 모두 없앤 것은 아닙니다.

②: 세습은 반드시 아버지에게서 맏아들로 이어지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③: 왕이 바뀔 때마다 다른 집안을 고르는 것은 특정 왕실 안에서 왕위를 잇는 세습과 다릅니다.

다시 읽기: Q02.

확인 05

정답: 마립간

신라는 지증왕 때 왕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꾸었습니다. 마립간도 왕을 부르던 칭호이므로, 이때 처음 왕이 생겼다고 보면 안 됩니다.

다시 읽기: Q03 설명 1·2.

확인 06

정답: ①

왕호의 변화는 다른 제도 정비와 함께 왕의 지위를 높이고 국가 체제를 갖추어 간 흐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 ②: 신라에는 이전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마립간은 그 왕을 부르던 칭호입니다.
- ③: 왕호가 바뀌었다고 귀족의 역할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 ④: 칭호만 바꾸는 것으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리와 지방을 다스릴 조직도 필요했습니다.

다시 읽기: Q03·Q08.

확인 07

정답: ㄱ 율령 / ㄴ 반포

율령은 형벌과 나라 운영에 관한 법이고, 반포는 이를 널리 알리는 일입니다. ‘율령 반포’는 국가가 법과 행정의 기준을 정비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읽기: Q04 용어 풀이·설명 1·2.

확인 08

정답: ③

율령은 형벌뿐 아니라 나라의 업무와 관리 조직 등에 관한 기준도 다룹니다. 이런 공통 기준은 여러 지역을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①: 공통된 법을 마련했다고 신분 차이나 정치적 권리의 차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 ②: 국가 차원의 공통 기준을 마련한 것이므로 각 지역에 모든 결정을 맡긴 것과 다릅니다.
- ④: 율령은 처벌 규칙만이 아니라 관리 조직과 나라 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합니다.

다시 읽기: Q04.

확인 09

정답: ㄱ 관등 / ㄴ 관직 / ㄷ 관복

관등은 지위의 높낮이, 관직은 맡은 자리, 관복은 관리의 옷입니다. ㄷ에 ‘공복’이라고 써도 맞습니다. 관등과 관직은 관련되어 있지만 같은 말은 아닙니다.

다시 읽기: Q05 용어 풀이·설명 3.

확인 10

정답: ②

관등에 따라 관복의 색 등을 달리하면 관리들의 등급을 겉으로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 조직의 질서를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①: 개인이 좋아하는 색을 자유롭게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구별한 것입니다.
- ③: 등급 차이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드러내려는 제도였습니다.
- ④: 관등·관복의 정비는 왕 아래의 관리 조직을 갖추는 일과 관련됩니다.

다시 읽기: Q05 설명 1·2.

확인 11

정답: ④

불교 공인은 국가가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일입니다. 신라에는 공인 이전에도 불교가 전해져 있었습니다.

- ①: 국가의 인정이 모든 사람의 즉각적인 믿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②: 불교를 공인한 뒤에도 기존 신앙은 남아 있었습니다.
- ③: 불교가 전해진 때와 국가가 공식 인정한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읽기: Q06 용어 풀이·설명 3.

확인 12

정답: ③

고구려는 소수림왕, 백제는 침류왕, 신라는 법흥왕 때 불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①: 고구려의 연결만 맞습니다. 백제는 고이왕이 아니라 침류왕, 신라는 지증왕이 아니라 법흥왕입니다.
- ②: 백제의 연결만 맞습니다. 고구려는 고국천왕이 아니라 소수림왕, 신라는 지증왕이 아니라 법흥왕입니다.
- ④: 신라의 연결만 맞습니다. 고구려는 고국천왕이 아니라 소수림왕, 백제는 고이왕이 아니라 침류왕입니다.

다시 읽기: Q06 설명 3·나라별 정리표.

확인 13

모범 답안: 불교는 여러 집단이 함께 따를 생각과 믿음의 바탕을 마련하여 나라를 하나로 묶는 데 도움이 되었고, 불교를 보호하는 왕실의 권위를 높여 왕권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정 기준: ① 여러 집단의 사상·믿음을 묶는 데 도움이 됨, ② 왕실의 권위나 왕권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됨의 두 가지가 모두 들어 있으면 맞습니다. ‘사상 통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서로 다른 집단이 함께 따를 믿음을 마련했다’고 풀어 써도 됩니다. 두 항목 중 하나만 있으면 다른 한 항목을 보완해야 합니다.

해설: 종교를 함께 따르는 데서 오는 통합 효과와 왕실이 종교를 보호하며 얻는 권위를 함께 묻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날 불교를 믿었다’거나 ‘왕이 신이 되었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다시 읽기: Q06 설명 1·2.

확인 14

정답: ㄱ 제가 회의 / ㄴ 정사암 회의 / ㄷ 화백 회의

세 회의는 각 나라의 귀족들이 정치에 참여했음을 보여 줍니다. 이름을 나라와 함께 연결하되 세 회의의 운영 방식이 모두 같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맥상 회의를 뜻하는 것이 분명하면 ‘제가·정사암·화백’으로 써도 맞습니다.

다시 읽기: Q07.

확인 15

정답: 만장일치

만장일치는 회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수결처럼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참석한 사람이 모두 동의하는 방식’이라고 풀어 써도 맞습니다.

다시 읽기: Q07 설명 3·그림 3.

확인 16

정답: ①

화백 회의는 신라의 귀족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던 회의로, 만장일치를 특징으로 합니다.

- ②: 일반 백성 전체가 참여한 회의가 아니라 귀족들이 참여한 회의였습니다.
- ③: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결정하는 것은 다수결입니다. 만장일치와 구별해야 합니다.
- ④: 고구려의 여러 ‘가’가 모인 회의는 제가 회의입니다.

다시 읽기: Q07.

확인 17

정답: ④

귀족 회의의 영향력과 왕권의 강약은 나라와 시기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회의의 존재만으로 왕이 언제나 힘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①: 귀족 회의는 귀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모임입니다.
- ②: 귀족 회의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다루었습니다.
- ③: 중앙 집권이 진행되어도 귀족은 관리나 회의 참여자 등으로 정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시 읽기: Q08.

확인 18

정답: ②

삼국은 왕 중심의 통치 조직을 갖추었지만 귀족들도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중앙 집권과 귀족의 참여는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 ①: 귀족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왕 중심의 통치 조직 자체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 ③: 율령을 반포해도 실제 일을 맡을 관리와 귀족들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 ④: 불교 수용이 귀족 회의의 역할을 모두 없앤 것은 아닙니다.

다시 읽기: Q01 설명 2·Q04 설명 2·Q08.
